

[취재요청서] 서울퀴퍼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 행진

2023.05.09.

(총 7매)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발신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 행진 기획단

일시 23.05.12.(금) 오전 11시

장소 신촌역 스타광장(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백화점유플렉스 신촌점 앞)
***취재시 PRESS 명찰을 받아가신 분들만 사진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진촬영금지 스티커가 부착된 참여자들의 사진은 개인이 특정되는 방식으로 촬영하실 수
없습니다.**

연락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 권소원)

“서울퀴퍼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한다”, 대학가 릴레이 행진
주최측,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 더는 좌시할 수 없어”
학생들, “서울퀴퍼는 모두의 행사, 불허해야 할 것은 축제 아닌 혐오”

1. 언제나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5월 12일 (금) 오전 11시, 신촌역 스타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 행진” (이하 행진) 이 개최된다. 해당 행진은 10개 대학의 20개 단위들이 공동주최하는 행사다.
3. 지난 5월 3일 ‘열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는 서울퀴어문화퍼레이드(이하 서울퀴퍼)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퀴퍼예정일인 7월 1일 서울광장에서는 중복신고된 ‘청소년·청년 회복콘서트’ 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퀴퍼를 준비하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해당 안건이 중복신고 단위간 조정 절차 등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생략한 채 갑작스럽게 시민광장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결정 과정에 서울시의 개입 및 일부 종교·언론정치계를 포함한 성소수자 혐오 세력의 압력이 작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

1)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23 제24회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취재요청서]

4. 주최측은 이번 서울광장 사용 불허 결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이며, 조직위측에 지지와 연대를 표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학소위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7년여간 매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퀴퍼는 학내외 다양한 구성원들이 즐겁게 참여해온 행사” 라며, “서울퀴퍼에는 광장 사용을 불허하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기조로 한 행사에 광장사용 권한을 준 것은 성소수자에 명백한 차별이며, 서울퀴퍼를 기다려온 수많은 학생·시민을 배제하는 결정”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 또한 주최측은 “최근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성소수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음을 명시했다.” 라고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더는 좌시할 수 없으며, 학생들은 침묵하지 않고 평등을 위해 행동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 한편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 행진 기획단” 은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를 초동단위로 하여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경희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아쿠아,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올림,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고려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동국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QUD,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추진위원회, 서울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위디,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이화교지편집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외행성, 한양대 에리카 성소수자동아리 하이쿼어,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흥반사가 참여해 구성된 단위다.
7.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

서울퀴퍼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 행진 기획단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 1]
- [붙임3. 발언 2]
- [붙임4. 발언 3]

다.”,2023.04.26., <https://www.sqcf.org/notice/?idx=14993991&bmode=view>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서울시,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불허 결정한다”, 2023.05.03.,
<https://www.sqcf.org/notice/?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lO3M6MzoiYWxsljt9&bmode=view&idx=15057144&t=board>

그래도 무지개는 뜬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규탄하며

5월 3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고, 대신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의 개최를 허용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음란한 동성애 축제”로 표현하며 “청소년,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콘서트 자리”와의 대립항에 위치시키는 혐오세력의 전략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었다. 유구한 혐오의 논리요, 행정에마저 드리운 차별의 발악이다.

우리에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리고 서울광장은 무엇을 의미하였나. 여름의 광장에서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혐오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동료들과 나아갔고, 그렇게 더 나은 시대로 모두가 함께 전진해갔다. 그 여름을 기억하는 우리가 이곳에 있다. 안전한 일상도 퇴근도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국가가 방관한 죽음에 친구를 잃기도, 짐짝처럼 휠체어째로 옮겨지기도, 성소수자에 대한 직간접적 ‘검열’로 술한 동료들을 잃기도 했으나 광화문으로, 국회로, 그리고 광장으로 끝없이 나아갔던 우리가 이곳에 있다. 코로나19가 드러낸 각종 모순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우리가 이곳에 있다. 이 폭력의 시대에서 자라나며 각자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투쟁해온 우리가 이곳에 있다. 그런 우리는 오늘 합리와 절차의 이름으로 가장한 세계의 폭력에 반(反)하여 새로운 시대를 호명해갈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천명한다.

그 모든 차별과 혐오와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는 뜬다. 그러니 연대와 세계의 정의와 전진의 물결에 구태여 역행하며 배제와 혐오의 정치를 답습하는 그대여, 그대는 이 시대가 밝혀가는 온화한 사랑의 연대를 직시하고 지난날의 아집에 빠져리게 참회하라. 그리고 우리의 믿어 의심치 않는 동료들이 이어나갈 여름의 행진을 보라.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는다.

2023.05.12.

서울퀴어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행진

[취재요청서]

[붙임2. 발언 1]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이하 퀴이즈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성소수자 동료들에게 무한한 인권과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퀴이즈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생들이 또다시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한 지 30주년이 된 현재에도 우리는 여전히 거리로 나와 우리의 권리를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원하는 대로 인식될 수 없고, 가족을 이룰 수 없으며, 혐오를 그대로 마주하며 매일매일 생존하고자 분투해야만 합니다. 그때로부터 국가는 변화를 하기는 했습니까? 우리의 존재조차 사회적 타협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부르며 우리를 지운 것 말고 국가가 한 것이 있습니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 광장 사용을 불허한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국가의 혐오를 여실히 드러낸 또다른 순간이 되었습니다. 급조되어 구체적인 내용조차 불분명한 종교행사를 명목상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수리해버리다뇨. 해당 행사는 공익을 위한 문화 행사로 인정하고, 성소수자의 자리는 모두를 위한 공간에 부적합하다고 치부한 서울시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형식적 우선순위는 대체 어느 조례가 허용한 것입니까?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시장의 의무는 어디로 사라지고 은폐되었습니까?

우리는 지워지고 또 지워집니다. 매일매일 사회는 우리의 존재를 가시화하기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숨을 것을 강요합니다. 그렇기에 2015년 이래 매년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며 꾸준히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표로 해온 퀴어문화축제는 자긍심을 동지와 개방적인 공간에서 되새길 수 있는 단 하루뿐인 소중한 날입니다. 그 하루마저 서울시는 혐오 여론을 등에 업고 박탈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광장은, 이 도시는, 이 국가는 대체 모두를 위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지워집니다. 당신들의 시야에서 밀려나고, 당신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침묵하고, 안온히 잠식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이곳에 나왔습니다. 광장을 막아도, 국가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기를 택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는 길마다 광장으로 만들고 무지개빛으로 물들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존재는 숨겨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으며, 언제나 굳건히 살아 숨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생존을 투쟁으로 만들겠다면, 우리는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싸워나가겠습니다. 스러지는 동료 하나하나를 붙잡으며, 단 한 명의 권리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는 당신들이 그토록 꺼리는 모습으로 기꺼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모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날이 도래할 때까지, 당신들의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번이고 모이고 행진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차별적인 행정에도, 좁디좁은 시야에도 우리는 성소수자 청소년, 청년으로서 생존하며 지난한 투쟁을 함께해나갈 것입니다. 마땅한 구성원으로서 오늘 우리는 함께 분노하고 요구합니다. 차별과 혐오로 광장을 매우려는 서울시여,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수리하라!

[붙임3. 발언 2]

서울시는 다문 입을 열고 물음에 답하라!

서울시의 자기모순적 조례 무시를 규탄하며

지난 5월 3일, 서울시는 절차 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였다. 우리가 지난 6년간 사용해온 그 자리는 이제 우리를 단죄하려 하는 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졌다. 기습적으로 진행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집회 신고자 간 충분한 협의와 조정과정 없이 시작부터 조례를 어기며 개최되었다. 이들은 혐오세력의 행사가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 라는 이름을 걸고 있음을 핑계로 조례 6조에 의거,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라 하여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몰아내고 개최하는 해당 행사에 성소수자 청소년과 청년의 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성소수자 청소년과 청년의 높은 정신과 질환 유병률과 자살율은 감히 청소년과 청년의 회복을 참칭하는 세력들의 차별과 혐오, 탄압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들의 행사를 과연 해당 조항에 부합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더욱이 해당 조항에는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용신고 역시 명시하고 있다. 그 두번째는 바로 ‘시민의 신체 · 생명 등에 침해할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역시 5조에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를 금지되는 집회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된 지난 수 년간 우리는 인근의 지하철역에서, 광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광장을 둘러싼 곳곳에서 ‘천벌’ 과 ‘지옥’ 과 같은 원색적 비난과 협박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이 광장을 점거한다고 해서 이러한 발언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다. 비록 서울은 아닐지라도 지난 2018년 인천에서는 퀴어들에게 혐오세력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적이 있는데도 서울시는 자신들이 수리한 행사가 ‘시민의 신체와 생명에 침해할 가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 이 되지 않을 것이라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조례에서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용신고에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 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비록 서울시에서 해당 광장의 조성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스스로 밝힌 홈페이지 속 조성 배경에는 ‘장애자, 노약자에 대한 보행권 배려’ 가 명시되어 있다. 즉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이들의 가시화야말로 서울광장의 조성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저들이 과연 이러한 조성 목적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서울시는 뚝뚝하게 대답하라. 감히 우리를 광장에서 몰아내고 싶다면 그 합당한 이유를 모두에게 명확히 밝히라.

하이키어 에리카는 2021년 이후 햇수로 3년째 정규동아리 인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가 퀴어들을 광장으로부터 내몰기 직전인 4월 25일, 우리는 5번째 인준 시도에서 동아리 대표자들의 명확한 반대 사유 없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여 또 다시 정규동아리 인준에 실패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의 자치기구에서도, 시민의 열린 광장에서도 한 마디의 합당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로 쫓겨나야만 했

[취재요청서]

다. 오갈 데 없는 우리의 절규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침묵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 침묵은 혐오하는 자들의 괴기스러운 고성을 가리지 않기 위한 무대이다. 그 침묵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에의 동조요, 우리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는 저들의 안대이며 귀마개이다. 서울시는 이제 침묵을 멈추고 차별에 동조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라. 굳게 다문 입을 열어 우리의 물음에 떳떳이 답하라.

2023.05.12.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성소수자동아리 하이쿼어 에리카 HYQE

[취재요청서]

[붙임4. 발언 3]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 홍반사입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서울시의 불허 결정 소식을 접한 저희 홍반사 또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적법하지 못한 절차' 로 갑작스럽게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는 제대로 된 결정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대학생 성소수자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퀴어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일 년에 한 번뿐인 유일한 장입니다. 이 유일한 축제마저 앗아간 서울시는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질만큼 지속되어 왔던 이 혐오의 끈을 끊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이미 충분히 위축되고 좌절하며 때때로 극단적인 선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퀴어 국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폭력이자 서울시가 퀴어 죽이기에 시동을 건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우연찮게 이 세상에 태어나 우연찮게 부여받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도둑 맞았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사각지대의 성소수자들을 오히려 이토록 파렴치한 방식으로 외면한다면 우리는 더이상 그런 도둑들을 국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의 가벽 하나 너머에는 늘 기독교 혐오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들을 직접 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퀴어 행사에도 혐오 세력은 항상 그림자처럼 바짝 쫓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제 서울시는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라는 기괴한 명목으로 재등장한 혐오자들의 편에 서서 퀴어 죽이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결정은 이제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만큼 너무나 많은 국민들을 지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퀴어와 엘라이들을 등에 업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당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나라도 여타 국가들처럼 성소수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나라가 되었을 때, 당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혐오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했던 기관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밝을 무지갯빛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간 동지입니까? 우리는 그 날이 밝을 때까지 절대 지워지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식이 당연해지는 바로 그 날, 당신들의 결정을 오늘과 같이 규탄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홍반사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강경히 규탄합니다.

2023.05.12.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